WCAG 3.0 초안이 평가 방법에 묻는 것: 발표 원고(텍스트판)

2026년 9월 10일 WCAG 3.0 초안 기준입니다. 용어 번역은 발표자 시안입니다. 장마다 그림과 발표에서 하는 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괄호 속 멈춤은 발표자가 쉬는 시간입니다.

1. WCAG 3.0 초안이 평가 방법에 묻는 것

그림: 제목 "WCAG 3.0 초안이 평가 방법에 묻는 것", 부제 "2026년 9월 초안으로 본 적합성·범위·샘플", 발표자와 날짜.

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교 정보화지원팀 권기표입니다. 10월 분과 회의에 이어 다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디지털접근성표준화포럼에 감사드립니다. 발표 자료 주소는 채팅창에 올려 두었고요.

오늘은 W3C 작업그룹이 만들고 있는 WCAG 3.0 초안을 읽습니다. 기준은 작업그룹 안 논의가 아니라 9월 10일 초안이고요. 지난 회의에서 질문을 받았던 적합성과 Bronze, Silver, Gold 이야기를 이번에 세 장 더 넣었습니다.

평가 방법론, 곧 국내 EM 작업에 비추어, 평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 봅니다.

2. WCAG 3.0은 무엇을 지킬지는 새로 짜고, 무엇을 골라 볼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한 문장.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배포판에는 아래에 순서 네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WCAG 3.0은 무엇을 지킬지는 새로 짜고 있는데요. 어떤 화면을 골라 평가할지는 WCAG 2 때도, 지금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1초 멈춤)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1초 멈춤)

네 가지를 차례로 보죠. 지금 어디쯤인지, 무엇이 바뀌는지, 무엇을 정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열어 둘지입니다. 자료와 발표 전문은 채팅창 주소나 마지막 장의 QR 코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받을게요.

3. WCAG 3.0은 아직 초안이고, 작업그룹은 후보 권고안을 2028년 1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 여섯 개. 2021년 첫 초안, 2023년 방향 전환, 2026년 9월 최신 초안까지는 채운 점이고, 2026년 12월 다음 초안, 2028년 1월 후보 권고안 목표, 2029년 권고안 목표는 빈 점.

먼저 지금 어디쯤인지입니다. 채운 점은 지난 일, 빈 점은 계획입니다.

첫 공개 초안은 2021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항목마다 0점에서 4점을 매기는 점수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에 방향을 크게 바꾸었죠. 가장 최근 초안은 지난 9월 10일에 나왔는데요. 3월 초안에 비해 적합성, 태그, 범위, 항목 수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초안은 올해 12월에 낼 계획입니다. 10월 작업그룹 회의록에는 후보 권고안 목표가 2028년 1월로 나옵니다. 작업 일정 문서에는 정식 표준인 권고안이 2029년이고요. 승인 전인 새 차터에는 후보 권고안이 아직 2027년 4분기로 적혀 있습니다.

4. 지금은 작업 초안이고, 요구사항은 다섯 상태 가운데 모두 개발 중입니다

그림: 두 줄 그림. 위 줄은 W3C 표준이 되는 네 단계(작업 초안, 후보 권고안, 제안 권고안, 권고안)이고 작업 초안이 강조되어 있다. 아래 줄은 작업 초안 안에서 절마다 붙이는 다섯 상태(자리표시, 탐색 중, 개발 중, 다듬는 중, 성숙)이고 개발 중이 강조되어 있다. 배포판 칸에는 영문 이름도 있다.

후보 권고안이 어디쯤인지 한 장으로 놓았는데요.

위 줄이 W3C 표준이 되는 순서입니다. 작업 초안, 후보 권고안, 제안 권고안을 거쳐 정식 표준인 권고안이 됩니다. 지금은 맨 앞의 작업 초안이죠.

아래 줄은 작업 초안 안에서 절마다 붙이는 상태인데요. 자리표시, 탐색 중, 개발 중, 다듬는 중, 성숙의 다섯 단계입니다. 탐색 중은 방향을 찾는 단계이고, 개발 중은 무엇이 필요한지 대략 합의했지만 큰 쟁점이 남은 단계입니다. 다듬는 중부터 폭넓은 공개 검토에 들어가고요. 9월 초안의 요구사항은 모두 개발 중이고, 보고 절은 탐색 중입니다. (1초 멈춤)

일정은 이미 한 번 밀렸습니다. 2분기에 내려던 초안이 9월에 나왔거든요.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WCAG 3은 2.2를 폐기하지 않으므로, 당분간 현장 기준은 2.2입니다

그림: 한 문장. "WCAG 3은 WCAG 2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WCAG 3 확정 뒤에도 몇 년 동안 폐기하지 않는다는 W3C 설명.

그러면 WCAG 2.2는 어떻게 될까요. (2초 멈춤)

WCAG 3은 2.2의 뒤를 잇습니다. 그래도 W3C는 WCAG 2를 폐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CAG 3이 확정된 뒤에도 몇 년은 그대로 둡니다.

초안에는 이런 전망도 실려 있는데요. 2.2의 A와 AA를 충족했다면 3.0 적합성도 대부분 충족하리라는 겁니다. 테스트와 채점 방식이 달라 추가 작업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러니 당분간 현장의 기준은 WCAG 2.2와 KWCAG 2.2입니다. 지금 만드는 평가 방법론이 몇 년 뒤에도 쓰이려면 어디를 열어 둘지 살핍니다.

6. 성공 기준 자리에 Core 요구사항, Supplemental 요구사항, Assertion이 들어섰습니다

그림: 큰 숫자 셋. Core 요구사항 106, 모두 충족해야 적합. Supplemental 요구사항 74, Core 위에 더함. Assertion 35, 거친 절차를 밝힘. 아래에 2026년 9월 초안 기준 모두 개발 중이고 권장 사항 1개를 더해 216개라는 설명.

이제 무엇이 바뀌는지 보죠. 먼저 WCAG 2.2를 떠올려 보시면, 원칙 4개 아래 지침 13개, 그 아래 성공 기준 86개가 있었죠. 3.0 초안에서는 그 성공 기준 자리에 세 가지가 들어섰습니다. Core 요구사항 106개, Supplemental 요구사항 74개, Assertion 35개입니다.

2.2가 성공 기준을 수준으로 나눴다면, 3.0은 조항의 종류로 나누는 셈인데요. Core 요구사항은 적합하려면 모두 지켜야 하고요. Supplemental 요구사항은 Core 위에 더하는 요구로, 적합성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ssertion은 2.2에 없던 종류로, 사용성 테스트처럼 화면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밝히는 진술인데요. 예는 10장에서 보죠.

이 셋에 권장 사항 하나를 더한 216개 모두 개발 중이고요. 다듬는 중까지 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7. 적합성 수준은 A·AA·AAA 셋에서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림: 두 칸 비교. 왼쪽 WCAG 2.2는 A·AA·AAA 세 수준, 보통 AA까지 요구, 기준별 충족·미충족. 오른쪽 WCAG 3.0 초안은 수준 하나, Core 요구사항 전부 충족이 적합, Bronze·Silver·Gold는 적합성 위 보고 등급.

적합성 수준도 바뀌었습니다.

왼쪽 칸 WCAG 2.2는 A, AA, AAA 세 수준이죠. 오른쪽 3.0 초안에서는 범위 안의 Core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하면 적합합니다. 적합성 수준은 하나뿐입니다. Bronze, Silver, Gold는 9장에서 따로 보죠.

국내 인증은 또 다릅니다. 전문가 심사는 33개 검사항목마다 준수율 95% 이상, 사용자 심사는 장애 유형마다 과업을 모두 해내야 합격합니다. 3.0의 적합성은 2.2와 마찬가지로, Core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증 합격과 적합성은 다른 판정이라, 두 결과를 평가 방법론에 어떻게 함께 적을지가 쟁점입니다.

8. Core 요구사항에 태그를 붙이는 안이 나왔고, Bronze·Silver·Gold는 보고 등급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림: 아래에서 위로 쌓은 네 층. 1단계 신체 상해 회피(신체 상해·위험 태그), 2단계 기초 접근(+ 장벽 태그), 3단계 적합성(+ 마찰 태그), 맨 위 4~6단계 Bronze·Silver·Gold(+ Supplemental 요구사항과 Assertion). 옆 띠에 "보고 등급, 누적, 탐색 중", 발표판은 띠 아래에 "대안: 가중치 3·2·1 점수".

9월 초안에는 Core 요구사항마다 태그를 붙이는 안이 실렸는데요. 태그는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를 나타냅니다. 오류 하나하나가 아니라 요구사항마다 매기는 겁니다. 신체 상해, 위험, 장벽, 마찰의 네 가지이고, 개별 요구사항에는 아직 붙지 않았고요.

신체 상해는 바로 몸을 다칠 수 있는 경우, 위험은 금전·의료·법률·개인정보·보안 위험을 지나치게 키우는 경우입니다. 장벽은 진행을 막고, 마찰은 진행을 어렵게 합니다.

그림은 아래에서 위로 쌓은 네 층이죠. 맨 아래 1단계 신체 상해 회피는 신체 상해와 위험 요구사항을 지킨 상태입니다. 장벽까지 지키면 2단계 기초 접근, 마찰까지 지키면 3단계 적합성입니다.

이 보고 등급 절은 규범이 아니고, 아직 탐색 중입니다. 태그별 3·2·1점으로 진행률을 내는 점수 대안도 의견을 받고 있고요. 태그 이름도 다음 초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맨 위 4·5·6단계가 Bronze, Silver, Gold인데요. 이건 바로 다음 장에서 보죠.

9. 적합성은 Core를 다 지켰는지 가르는 판정이고, Bronze·Silver·Gold는 그 위에 더 한 것을 보고합니다

그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는 계단 여섯 칸. 1 신체 상해 회피, 2 기초 접근, 3 적합성(Core 전부), 4 Bronze, 5 Silver, 6 Gold.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세로 점선이 있고, 점선 왼쪽 위에는 "부적합", 오른쪽 위에는 "적합"이라고 적혀 있다. 3 적합성 칸이 강조되어 있다.

지난 10월 16일 이 분과 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적합성을 충족한 것과 Bronze, Silver, Gold는 무엇이 다르냐고요. (1초 멈춤)

한 줄로 답하면, 적합성은 맞는지 가르는 판정입니다. Bronze, Silver, Gold는 적합한 뒤 무엇을 더 했는지 보고하는 등급이고요.

그림은 앞 장의 층을 옆으로 눕힌 계단인데요. 가운데 세로 점선이 적합 판정입니다. 점선 왼쪽 1단계와 2단계는 아직 적합하지 않은 사이트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 주는 칸이고요. 오른쪽은 3단계 적합성에서 시작해 Bronze, Silver, Gold로 쌓입니다.

두 개념은 들어 있는 자리부터 다릅니다. 적합성 규칙은 초안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적합성 절에, 등급은 참고용인 보고 절에 있죠. 9월 초안에서는 수준 나누기를 적합성에서 보고로 옮겼습니다. (1초 멈춤)

그래서 Core를 모두 지키면 Bronze 없이도 적합합니다. 거꾸로 적합하지 않으면 Bronze도 없고요. 3월 초안까지는 Bronze가 가장 낮은 적합성 등급이었으니, 9월 초안에서 크게 달라진 곳입니다.

10. Bronze·Silver·Gold까지는 네 걸음입니다: 적합하고, Supplemental 요구사항을 채우고, Assertion을 하고, 밝힙니다

그림: 네 칸 흐름. 1 적합(Core 전부), 2 Supplemental 요구사항 더 채우기, 3 Assertion 절차를 하고 밝히기, 4 주장(충족한 쪽이 밝힘). 위 줄에 Bronze·Silver는 2와 3을 몇 개 더할지, Gold는 조직 Assertion 개수가 TBD라는 설명, 아래 줄에 초안에 등급 심사 기관은 없고 정책이 Silver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는 문장. 1 적합 칸이 강조되어 있다.

그럼 Bronze, Silver, Gold는 무엇을 해야 받을까요. 원문을 나눠 보면 네 걸음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정해진 순서가 없고요.

첫째는 적합입니다. 범위 안의 Core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고요. 등급은 앞 단계 위에 쌓여서, Core 하나가 빠지면 아무리 많이 더해도 Bronze가 아닙니다.

둘째는 Supplemental 요구사항을 더 채우는 겁니다. 플래시처럼 Core 요구사항을 더 엄격하게 만든 판도 여기 들어 있고요.

셋째는 Assertion인데요. 초안은 Assertion을 둘로 나눕니다. 사용성 테스트처럼 콘텐츠를 확인하는 콘텐츠 Assertion은 Bronze와 Silver에, 직원 교육처럼 조직이 하는 조직 Assertion은 Gold에 듭니다. 자막 사용성 테스트라면, 자막이 필요한 이용자와 테스트를 했고 찾은 문제를 고치거나 줄였다고

진술합니다. 평가에서는 진술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았다면 이 진술을 쓸 수 없으니, 테스트하고, 고치고, 밝히는 세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넷째는 밝히는 일인데요. 국내 품질인증처럼 인증기관이 심사해 마크를 주는 구조는 초안에 없습니다. 채운 쪽이 그 등급을 주장하는 방식이죠. 다만 편집자 노트에는 정책 입안자가 그 위 등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초 멈춤)

Bronze와 Silver는 둘째와 셋째를 몇 개 더했는지로 갈리는데, 그 개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합쳐 세는지 따로 세는지도 아직 초안에 없고요.

11. 9월 초안으로는 아직 적합도 Bronze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2.2를 지키며 절차를 기록해 둡니다

그림: 두 칸 비교. 왼쪽 "아직 비어 있는 것": 등급마다 더할 개수 TBD, Assertion마다 콘텐츠용·조직용 미정, Core 기준값 일부 미정, 보고 등급 절 자체가 탐색 중. 오른쪽 "지금 할 수 있는 것": WCAG 2.2 충족, 사용성 테스트 같은 절차를 하고 기록, Supplemental 74개를 사이트에 대 보기, 심각도를 두 겹으로 적기. 발표판은 칸마다 세 줄.

그러면 지금 Bronze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초 멈춤) 9월 초안으로는 아직 누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왼쪽 칸은 초안의 빈칸인데요. 먼저 등급마다 몇 개를 더해야 하는지가 추후 결정, TBD입니다. Assertion 35개도 콘텐츠와 조직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텍스트 대비 같은 Core 요구사항은 기준값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은 찾아도 적합은 아직 확정할 수 없죠.

오른쪽 칸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W3C는 지금 2.2를 충족하는 것이 WCAG 3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합니다. 사용성 테스트처럼 참여자를 모아야 하는 절차는 지금부터 하고 기록해 두면 좋겠고요. Supplemental 요구사항 74개를 사이트에 대 보는 일도 준비가 됩니다. (1초 멈춤)

하나 덧붙이면, 적합도 등급도 정한 범위 안의 이야기입니다.

12. 평가 단위에 페이지와 함께 뷰와 프로세스가 들어옵니다

그림: 나란히 놓은 네 칸. 페이지·뷰, 프로세스, 경로(정의 중), 컴포넌트(정의 중). 프로세스 칸이 강조되어 있고, 아래에 프로세스에 속한 화면은 모두 넣는다는 설명.

범위를 정하는 단위도 바뀝니다. 단위 네 가지를 칸으로 놓았는데요.

3.0 초안은 페이지와 뷰를 함께 쓰고, 주소가 있는 페이지를 우선 단위로 봅니다. 모달 창이 뜨면 새 뷰입니다. 경로와 컴포넌트는 9월 초안에 새로 들어왔고, 아직 정의 중이고요.

강조한 칸은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화면이 프로세스에 속하면, 그 프로세스의 화면을 모두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민원 신청을 예로 들어 보죠. 로그인, 신청서 작성, 파일 첨부, 제출 확인까지 모든 화면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본인인증 화면도 들어갑니다. WCAG 2의 전체 과정 요건과 취지가 같습니다.

13.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따옴표로 크게 옮긴 초안 주석. "범위를 고르는 방법은 WCAG 3에서 정하지 않는다." 아래에 같은 주석에 WCAG-EM 같은 안내나 지역 법규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는 줄. 배포판에는 주석 전문 번역.

그러면 무엇을 골라 볼까요. (2초 멈춤)

초안의 용어 정의에 붙은 주석을 옮겨 왔는데요. 적합성 범위로 삼을 대상을 어떻게 고를지는 WCAG 3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W3C 평가 방법론인 WCAG-EM 같은 비규범 안내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나 지역의 법과 규정이 방법론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등급의 빈칸은 다음 초안에서 채울 자리인데요. 이건 WCAG 3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적어 둔 자리입니다. (1초 멈춤)

다만 범위를 정한 뒤에는 그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평가에 넣어야 합니다. 고른 화면만으로 사이트 전체의 적합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그룹은 테스트와 보고 안내를 따로 만들기 시작했고, 연말까지 개요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이미 진흥원의 표준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사이트 규모로 심사할 페이지 수를 정합니다. 고를 페이지는 메인, 로그인, 통합검색, 주요 목적 서비스 같은 유형별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가입이나 조회처럼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서비스는 단계별 페이지를 고르게 합니다. (1초 멈춤)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14. 테스트는 판정이 갈리는 정도로 나누고, 거친 절차는 Assertion으로 다룹니다

그림: 두 칸 비교. 왼쪽 테스트는 정량(평가자가 달라도 결과가 거의 같음)과 정성(평가자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음), ACT 규칙으로 정리 예정(비규범). 오른쪽 Assertion은 거친 절차를 진술로 밝히고 진술에 적을 정보만 확인, 필수 여부는 미정.

테스트를 나누는 방식은 초안과 함께 나온 Explainer에 실린 안인데요. 아직 탐색 중입니다.

왼쪽 칸이 테스트죠. 평가자가 달라도 결과가 거의 같은 정량 테스트와, 평가자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는 정성 테스트로 나눕니다.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있는지는 정량으로 판정합니다. 그 대체 텍스트가 이미지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지는 평가자가 판단합니다. 작업그룹은 이 테스트를 ACT 규칙, 곧 접근성 적합성 테스트 규칙으로 정리할 계획인데요. 이 규칙은 규범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오른쪽 칸은 10장에서 본 Assertion입니다. 결과가 좋은지는 보지 않고, 진술에 공개해야 할 정보가 다 있는지 봅니다. 뒷받침 기록을 내라고 하지는 않고요. Assertion을 적합성에 필수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15. 기본 접근성 지원 세트는 영어 콘텐츠 기준이고, 다른 언어의 세트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두 줄 문장. "기본 세트는 영어 콘텐츠 기준이고, 한국어 지원 세트는 대체 세트입니다." 아래에 작업그룹이 구현 방법(method)을 테스트하는 브라우저·보조기술·설정 조합이라는 풀이. 배포판 큰 글은 "기본 지원 세트는 영어 콘텐츠 기준입니다."

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한국어 지원 세트입니다. 한국어 환경에서 구현 방법이 통하는지 볼 브라우저, 보조기술, 설정의 조합을 말합니다. 3.0 초안에 따르면 적합성을 선언할 때 접근성 지원 세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기본 세트는 작업그룹이 구현 방법을 테스트할 때 쓰는 조합이고요. 영어 콘텐츠를 지원하는 흔한 브라우저와 보조기술로 정할 예정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업그룹은 기본 세트에서 통하는 방법이 없으면 Core 요구사항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언어와 지역의 대체 세트는 개인이나 기관, 지역 규제기관이 정할 수 있고요.

국내 전문가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브라우저로 봅니다. 사용자 심사에서 전맹 심사원은 PC에서 스크린 리더 하나 이상, 모바일에서 두 가지 모두로 과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영어 환경에서 통과한 방법이라고 한국어 스크린 리더에서도 꼭 통하지는 않습니다.

16. WCAG-EM 2.0은 WCAG 2용이지만, 뷰는 다른 기준에도 맞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림: 두 칸 비교. 왼쪽 WCAG-EM 1.0(2014)은 웹사이트, 웹 페이지. 오른쪽 2.0(2026년 7월)은 웹·앱·키오스크·문서, 뷰(평가에 쓰는 표준이 정한 단위), 평가 기준은 여전히 WCAG 2. 배포판에는 1.0 칸에 구조적 샘플과 무작위 10%, 2.0 칸에 샘플 선정 틀은 그대로라는 줄이 더 있다.

W3C 평가 방법론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7월 WCAG-EM 2.0이 나왔는데요. 저는 3.0과 이어지는 한 가지만 짚을게요.

WCAG-EM 2.0이 평가하는 기준은 여전히 WCAG 2입니다. 다만 뷰는 웹 페이지나 문서뿐 아니라, 평가에 쓰는 표준이 정한 단위까지 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은 KWCAG에도, 나중에 3.0에도 옮겨 쓰기 쉽다고 봅니다.

17. 국내 EM 표준에는 범위, 보고, 용어 세 곳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그림: 번호 붙은 세 칸. 범위(뷰·프로세스, 페이지 산정·선정 규칙), 보고(준수율과 못 지킨 검사항목 목록, 오류 유형별 심각도, 확인한 지원 세트, 적합 판정과 보고 등급을 나눈 칸), 용어(대응표). 아래에 넣을지는 표준 작업에서 정할 일이라는 줄.

국내 EM 표준에 3.0 개념이 들어오도록 열어 둘 곳을 세 군데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범위입니다. 페이지와 함께 뷰와 프로세스를 단위로 쓰는 자리인데요. 대표 샘플링을 다루겠다던 편집자 노트는 9월 초안에서 빠졌고요. 표준심사 지침의 페이지 선정 규칙을 국내 EM 문안으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고입니다. 준수율 옆에 못 지킨 검사항목의 목록과 오류 유형별 심각도를 함께 적는 자리인데요. 8장에서 본 태그 네 가지는 아직 탐색 중입니다. 표준심사 지침에도 오류와 권고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확인한 브라우저와 보조기술을 버전까지 적는 자리이기도 하죠. 적합 판정과 보고 등급을 나눠 적는 칸, 사용성 테스트 같은 절차를 기록하는 칸도 여기 둘 수 있고요. 이렇게 적으면 인증 합격 여부와 적합성 판정을 한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용어입니다. 초안 용어는 판마다 바뀝니다. 번역을 고정하기보다 영문과 국문을 나란히 둔 표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배포 자료 부록 2에 시안을 붙였습니다.

어느 것을 넣을지는 표준 작업에서 정하실 일입니다.

18. 토론 질문 두 가지: 무엇을 골라 볼지, 한국어 지원 세트

그림: 위에 핵심 문장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큰 질문 두 줄. 무엇을 골라 볼지, 어디서 출발할까요? 한국어 지원 세트는 어떻게 정할까요? 오른쪽에 발표 자료 내려받기 QR 코드(codeslog.com/talks/2026-dasf-wcag3). 아래에 연락처. 배포판 질문 1은 "무엇을 골라 볼지, 국내 규칙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이제 정리해 보죠. (1초 멈춤)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1초 멈춤)

열어 둘 곳은 범위, 보고, 용어, 이렇게 세 군데였죠. 이어지는 논의에 질문 두 개를 드립니다. (2초 멈춤)

첫째, 무엇을 골라 볼지, 국내 규칙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표준심사 지침에서는 규모로 페이지 수를 정하고, 유형별 우선순위로 페이지를 고릅니다. WCAG-EM에서는 구조적으로 고른 샘플에 무작위 10%를 더합니다. 둘을 어떻게 맞출지부터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어 지원 세트는 어떻게 정할까요? 표준심사 지침에서는 스크린 리더를 최신 버전으로 봅니다. 조합을 무엇으로 할지, 버전을 고정할지, 얼마나 자주 고칠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2초 멈춤)

작업그룹은 4분기에 범위와 보고를 검토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공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창구와 출처는 배포 자료 부록 6에 적었습니다. 오늘 자료와 실무 참고자료는 채팅창 주소나 화면의 QR 코드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1. 초안별 요구사항 수와 9월 초안에서 달라진 점

초안별 요구사항 수. 2025년 9월 4일 판: 지침 49, 기초 요구사항 88, Supplemental 20, Assertion 13, 121개 모두 개발 중. 2026년 3월 3일 판: 지침 44, Core 요구사항 92, Supplemental 요구사항 61, Assertion 28, Best practice 1, 182개 모두 개발 중. 2026년 9월 10일 판: 지침 46, Core 요구사항 106, Supplemental 요구사항 74, Assertion 35, 권장 사항(Recommended practice) 1, 216개 모두 개발 중. 2025년 9월 판부터 개발 중 이상인 항목만 실었습니다. 이름 변화: 결과(2021), 요구사항(2024년 12월), 기초 요구사항(2024년 12월 일부, 2025년 9월 전면), Core 요구사항과 Best practice(2026년 3월), 권장 사항(2026년 9월).

2026년 9월 초안에서 달라진 점(3월 초안과 비교)

1. 적합성 등급: 3월에는 Bronze·Silver·Gold가 A·AA·AAA처럼 적합성 등급이었고, 9월에는 수준이 하나(Core 요구사항 전부)입니다. 세 이름은 적합성 위 보고 등급(4~6단계)가 되었고, 적합성 절은 탐색 중에서 개발 중이 되었습니다(7~9장).

2. 태그: Core 요구사항에 신체 상해·위험·장벽·마찰 태그를 붙이는 안이 실렸습니다(보고 절, 탐색 중). 개별 요구사항에는 아직 붙지 않아, 어느 요구사항이 1·2단계에 드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8·11장).

3. 범위: 정한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MUST)이 생겼고, 대표 샘플링을 다루겠다던 편집자 노트는 빠졌습니다. 범위를 좁혀 정하는 단위에 경로·컴포넌트가 더해졌습니다(12·13·17장).

4. 항목 수: 182개에서 216개로 늘었습니다(Core 92→106, Supplemental 61→74, Assertion 28→35). Best practice 1개는 이름이 권장 사항(Recommended practice)으로 바뀌었습니다(초안별 수).

부록 2. 용어 대응표(이 자료와 1차 발표 자료)

용어 대응표(이 자료와 1차 발표 자료). Working Group(AG WG)은 이 자료에서 작업그룹, 1차 발표 자료에서 실무그룹. core requirement는 Core 요구사항(1차: 핵심 요구사항), 적합하려면 모두 충족. supplemental requirement는 Supplemental 요구사항(1차: 보충 요구사항), Core 위에 더하는 요구. assertion은 Assertion(1차: 어설션), 거친 절차를 밝히는 진술. conformance claim은 적합성 선언(1차: 적합성 주장), 적합성을 밝히는 문서. reporting tiers는 보고 등급(1차: 보고 단계), 1(아래)부터 6(위)까지 누적. core requirement tag는 태그(1차: 영향도 태그), 요구사항별 최대 피해. physical harm과 friction은 신체 상해와 마찰(1차: 신체 피해와 불편), 위험·장벽은 같음. Editor's note와 Explainer는 편집자 노트와 Explainer(1차: 편집자 주와 설명 문서). 이 자료는 발표자 블로그 WCAG 3 시리즈 표기를 따릅니다. 2026년 10월 22일 편집자 초안 PR #939에 tag를 category로, Core의 friction을 obstacle로 바꾸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반영 전).

부록 3. 국내 품질인증 심사와 WCAG-EM 2.0, WCAG 3.0 초안

국내 품질인증 심사(표준심사 지침)와 WCAG-EM 2.0, WCAG 3.0 초안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기준: 국내는 KWCAG 2.2 33개 검사항목입니다. WCAG-EM 2.0은 WCAG 2를, WCAG 3.0 초안은 Core 요구사항 106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샘플: 국내는 URL 1페이지가 기준입니다. 신규 심사에서는 사이트 전체 페이지 수가 20페이지 이하면 전체를 심사하고, 21~100페이지면 20페이지, 100페이지 이상이면 25페이지를 전문가 심사 페이지로 고릅니다. 고를 때는 유형별 우선순위를 따르고, 목적 서비스는 과정 전체를,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콘텐츠는 단계별 페이지를 넣습니다. WCAG-EM 2.0은 뷰 단위로, 구조적 샘플에 무작위 10%와 전체 과정을 더합니다(Step 3). WCAG 3.0 초안은 적합성을 선언하면 정한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평가에 넣게 하고, 범위를 고르는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정: 국내 전문가 심사는 검사항목마다 준수율 95% 이상, 사용자 심사는 과업 성공률 100%입니다. WCAG-EM 2.0은 평가한 샘플 모두에서 충족해야 하고, 점수는 선택입니다(쓰면 산출 방식을 밝힘). WCAG 3.0 초안은 Core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 국내 전문가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브라우저, 사용자 심사는 스크린 리더 최신 버전(PC 하나 이상, 모바일 두 가지 모두)으로 보고, 저시력은 확대·고대비 기능, 지체(상지)·뇌병변은 키보드만(모바일은 한 손가락) 쓰는 조건으로 봅니다. WCAG-EM 2.0은 접근성 지원 기준선(Step 1.3), WCAG 3.0 초안은 접근성 지원 세트(기본은 영어)를 씁니다.

사용자 참여: 국내는 사용자 심사가 필수입니다(신규 3인 이상으로 전맹, 저시력, 지체(상지)·뇌병변 유형을 넣고, 과업 10개 이상). WCAG-EM 2.0은 적극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WCAG 3.0 초안에서 사용성·보조기술 테스트는 Assertion입니다.

적합성과 인증·법적 준수(compliance)는 다른 판정입니다.

부록 4. 3월·9월 초안으로 본 사이트 A·B 판정(가정 예시)

3월·9월 초안으로 본 사이트 A·B 판정(가정 예시). 사이트 A는 범위 안의 Core 요구사항을 모두 지켰고 Supplemental 요구사항과 Assertion은 없습니다. 3월 초안으로는 적합이 아닙니다. Core는 다 지켰지만 Bronze의 일부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월 초안으로는 적합(3단계)이고, Bronze·Silver·Gold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사이트 B는 Core 요구사항 하나를 못 지켰고, Supplemental 요구사항을 여럿 채웠고 장애인 이용자와 사용성 테스트를 해서 찾은 문제를 고쳤습니다. 3월 초안으로도 9월 초안으로도 적합이 아니고 Bronze도 없습니다. 9월 초안의 1·2단계 보고는 태그가 배정된 뒤에 가능합니다. 3월 초안 3.2.1은 가장 낮은 적합성 등급인 Bronze를 Core 전부와 Supplemental 요구사항·Assertion의 일부(추후 결정)를 기능 수행 진술마다 충족하는 것으로 적었고, 여기서는 일부를 0보다 큰 값으로 읽었습니다. 9월 초안의 비어 있는 기준값이 모두 정해졌다고 치고 규칙만 따라간 가정 예시입니다.

부록 5. Bronze·Silver·Gold에 대한 흔한 오해 다섯

1. Bronze는 WCAG 2.2의 A 등급인가요? 아닙니다. 9월 초안에서 Bronze는 적합해야 보고할 수 있는 적합성 위 등급입니다. 짝을 찾는다면 2.2의 AA 적합과 3.0의 적합(Core 전부)이 가장 가깝습니다.

2. Bronze가 없으면 부적합인가요? 3월 초안까지는 그랬지만 9월 초안에서는 아닙니다. Core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Bronze 없이도 적합입니다.

3. 1·2단계는 부분 적합인가요? 아닙니다. 적합은 3단계 하나뿐이고, 1·2단계는 적합으로 가는 길에서 어디쯤인지 보고하는 단계입니다(Explainer 7절).

4. 보고 등급은 WCAG-EM의 결과 보고 단계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WCAG-EM 2.0의 5단계 "결과 보고"는 평가 순서의 한 단계이고, 보고 등급은 그 보고서에 적는 결과를 나누는 눈금입니다.

5. 점수 대안이 채택되면 Bronze·Silver·Gold는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Explainer 7.1의 점수 대안에서도 적합한 뒤 Supplemental 요구사항과 Assertion 수를 세어 세 등급을 줍니다(Gold 구성은 조금 다름).

부록 6. 출처(확인일 2026. 10. 26.)와 의견 창구

1. WCAG 3.0 Working Draft(2026. 9. 10., 비교용 2026. 3. 3.)
w3.org/TR/2026/WD-wcag-3.0-20260910

2. Explainer for WCAG 3.0, 그룹 노트 초안(2026. 9. 10., 비규범)
w3.org/TR/2026/DNOTE-wcag-3.0-explainer-20260910

3. W3C WAI, WCAG 3 Introduction(2026. 9. 25. 갱신)
w3.org/WAI/standards-guidelines/wcag/wcag3-intro

4. AG WG 회의록(2026. 10. 13.·20.)과 새 차터(승인 전) w3.org/2026/10/20-ag-minutes.html 외

5. w3c/wcag3 이슈 #473·#634·#816, PR #939 github.com/w3c/wcag3

6. WCAG-EM 2.0(2026. 7. 23.), ACT Rules Format 1.1(2026. 2. 5.) w3.org/TR/wcag-em-2

7. 표준심사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호·제2026-43호

8. 발표자 블로그(2026. 10. 18.)
codeslog.com/posts/wcag-3-conformance-vs-bronze-silver-gold

9. 1차 발표(2026. 10. 16.) codeslog.com/talks/2026-nia-wcag3

10. WCAG 3 공개 의견 github.com/w3c/wcag3/issues, public-agwg-comments@w3.org

읽기 도움말(통역과 낭독용)

- W3C: 더블유스리씨.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 WCAG: 더블유캐그. 2.x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3.0의 정식 이름은 W3C 접근성 지침. WCAG 3과 WCAG 3.0은 같은 것을 가리킴

- KWCAG: 케이더블유캐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판은 국가표준 KS X OT0003:2022(2022. 12. 28.)
- WCAG-EM: 더블유캐그 이엠. WCAG 평가 방법론(2.0). 1.0의 이름은 웹사이트 접근성 적합성 평가 방법론
- 국내 EM: 국내 평가 방법론(Evaluation Methodology) 표준 작업. 이 자료에서 WCAG-EM이라고만 쓰면 W3C 문서
- AG WG: 에이지 더블유지. W3C 접근성 지침 작업그룹
- CR: 씨알. 후보 권고안(Candidate Recommendation)
- 차터: charter. W3C 작업그룹의 활동 범위와 산출물, 일정을 정한 문서. 새 차터는 승인 전(정식 이의로 W3C Council 심의 중, 2026. 10. 26. 확인)
- 접근성 지원 세트: accessibility support set. 방법이 실제로 통하는지 확인할 때 쓰는 브라우저·보조기술·설정 조합. 기본 세트는 작업그룹이 정하는 영어 콘텐츠용 조합, 대체 세트는 다른 언어·지역용으로 개인·기관·지역 규제기관이 정하는 조합(한국어 지원 세트)
- 방법: method. 요구사항을 지키는 구현 안내(특정 기술용 또는 기술 무관). 기법·예시·테스트를 담고 비규범. WCAG 2의 기법(techniques)과 비슷한 자리
- 접근성 지원 기준선: accessibility support baseline. WCAG-EM 2.0 Step 1.3에서 평가에 쓸 브라우저·보조기술을 정한 것
- ACT: 액트. 접근성 적합성 테스트(Accessibility Conformance Testing). ACT 규칙 형식은 그 규칙을 쓰는 형식을 정한 W3C 권고안. ACT 규칙은 비규범
- A·AA·AAA: 에이·더블에이·트리플에이. WCAG 2의 적합성 수준
- Core 요구사항: 코어 요구사항. core requirement. 적합하려면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
- Supplemental 요구사항: 서플리멘털 요구사항. supplemental requirement. 적합성에는 필요 없고 Core 위에 더하는 요구사항
- Assertion: 어서션. assertion. 사용성 테스트처럼 화면 검사로는 알 수 없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는 진술. 콘텐츠 Assertion은 Bronze·Silver에, 조직 Assertion은 Gold에 필요(9월 초안 안)
- TBD: 티비디. To Be Determined, 추후 결정
- 주장(claim): 충족한 쪽이 범위와 근거를 밝혀 등급을 내세우는 일. 초안에는 등급 심사 기관이 없음
- Explainer: Explainer for WCAG 3.0. 초안과 함께 낸 그룹 노트 초안. 규범이 아니고 W3C 승인 문서도 아님
- 그룹 노트: Group Note. 작업그룹이 내는 참고 문서. 정식 표준(권고안)이 아님
- 적합성: conformance. 국내 WCAG 2.1 비공식 번역은 '준수'로 옮김. 인증 합격·법적 준수(compliance)와는 다른 판정
- 태그: core requirement tag. 요구사항마다 붙이는 가장 큰 피해(원문 severity) 표시
- 보고 등급: tiers of reporting. 1(아래)부터 6(위)까지 누적. 3단계가 적합성, 4~6단계가 Bronze·Silver·Gold

- 뷰: view. 화면 단위. 웹 페이지, 앱 화면, 문서 등
- 탐색 중·개발 중·다듬는 중: Exploratory·Developing·Refining. 초안 항목의 상태(이 순서로 진행). 앞에 자리표시(Placeholder), 뒤에 성숙(Mature)
- Bronze·Silver·Gold: 브론즈·실버·골드. 보고 등급 4~6
- 좁힌 범위: limited scope. 적합성 범위를 페이지·뷰, 프로세스, 경로, 컴포넌트로 좁혀 정하는 방식. 이 자료의 「범위를 좁혀 정하는 단위」. 경로와 컴포넌트는 정의 중
- 표준심사 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심사 지침」(2024. 12., 2025. 1. 1. 시행). 품질인증 심사 대상, 페이지 산정, 심사 환경, 심사 기준을 정한 문서

참고 자료

- W3C, WCAG 3.0 Working Draft(2026. 9. 10.) https://www.w3.org/TR/2026/WD-wcag-3.0-20260910/
- W3C, WCAG 3.0 Working Draft(2026. 3. 3., 비교용) https://www.w3.org/TR/2026/WD-wcag-3.0-20260303/
- W3C, Explainer for WCAG 3.0(그룹 노트 초안, 2026. 9. 10.) https://www.w3.org/TR/2026/DNOTE-wcag-3.0-explainer-20260910/
- W3C WAI, WCAG 3 Introduction(2026. 9. 25.) https://www.w3.org/WAI/standards-guidelines/wcag/wcag3-intro/
- AG WG 회의록(2026. 10. 13.·20.) https://www.w3.org/2026/10/13-ag-minutes.html , https://www.w3.org/2026/10/20-ag-minutes.html
- AG WG 작업 일정 문서 「WCAG 3 Schedule 2027 & 2028」(계속 고치는 문서, 2026. 10. 26. 확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eXk7JJtbqUoiv7amhWcdPnHPSjuwn7N9P-d2VafwFg/
- W3C, AG WG 새 차터(승인 전, 2026. 6.) https://www.w3.org/2026/06/ag-wg-charter.html
- w3c/wcag3 위키 Schedule https://github.com/w3c/wcag3/wiki/Schedule
- w3c/wcag3 이슈 #473·#634·#816, PR #939(2026. 10. 26. 확인) https://github.com/w3c/wcag3
- W3C, WCAG-EM 2.0(2026. 7. 23.) https://www.w3.org/TR/2026/NOTE-wcag-em-2-20260723/
- W3C, ACT Rules Format 1.1(2026. 2. 5.) https://www.w3.org/TR/2026/REC-act-rules-format-1.1-20260205/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심사 지침(2024. 12., 2025. 1. 1.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호(별표 3), 제2026-43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2022. 12. 28.)
- 권기표, 「WCAG 3 적합성과 Bronze·Silver·Gold,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받나」(codeslog, 2026. 10. 18.) https://codeslog.com/posts/wcag-3-conformance-vs-bronze-silver-gold/
- 권기표, 「WCAG 3.0 초안이 평가 방법에 묻는 것」(디지털접근성표준화포럼 서비스분과 회의, 2026. 10. 16.) https://codeslog.com/talks/2026-nia-wcag3/
- WCAG 3 공개 의견: https://github.com/w3c/wcag3/issues 또는 public-agwg-comments@w3.org

발표: 2026. 10. 26.(월) 디지털접근성표준화포럼 서비스분과 회의, 권기표(대구사이버대학교 정보화지원팀). 문의: eryngium86@dcu.ac.kr